논어 1편 학이 14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君子食無求飽，居無求安，敏於事而愼於言，就有道而正焉：可謂好學也已。」

독음 · 자왈 군자식무구포 거무구안 민어사이신어언 취유도이정언 가위호학야이

쉬운 풀이(요약) · 먹고 사는 안락함만 구하지 않고 일에는 민첩하며 말은 신중히 하고, 도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바로잡는 이를 배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한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君 임금 군 / 食 밥 식 식

無 없을 무 무 / 求 찾을 구 구 / 飽 배부를 포 포 / 居 살 거 거

安 편안할 안 안 / 敏 민첩할 민 민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事 일 사 사

而 말이을 이 / 愼 삼갈 신 신 / 言 말씀 언 언 / 就 좇을 취 취

有 있을 유 / 道 길 도 도 / 正 바를 정 정 / 焉 어찌 언 언

可 옳을 가 가 / 謂 고할 위 위 / 好 좋을 호 / 學 배울 학

也 어조사 야 / 已 이미 이 이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